

지방시대 이끄는 경북도 '전국생활체육전' 성황리 마무리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명
54개 경기장서 43개 종목 출전
생활체육 통해 우정·화합 중점

지난달 27일부터 경북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30일 구미복합스포츠펀터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명이 참가해 경북도내 11개 시군 54개 경기장에서 열린 43개 종목에 출전해 열전을 펼쳤다.

지난달 28일 개최식에는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였다.

경북도는 개최식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주제 아래, 참가 선수단이 생활체육을 통해



지난달 27일 구미복합스포츠펀터에서 열린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식. /경북도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180분간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대축전 주 개최지인 구미를 대표하는 무용농악단, 세계 속에 K-치어리딩을 널리 알리고 있는 구미대학교 천무용단, 농악의 대중화와 전통놀이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한두레마당예술단의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공식행사는 개식통고, 대한민국 최초 반도체 전자공업도시인 구미

를 상징하는 K-반도체를 형상화한 피켓을 든 선수단 입장, 대축전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단을 격려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환영사, 생활체육을 통해 소통하고 정정당당한 경기를 약속하는 동호인 다짐 및 주제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제공연에서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경북의 저력과 '경북이 만들어가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담은 구미시립무용단

의 공연, 경북의 4대 정신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인 K-타이거즈의 화려한 무대와 레이저·조명·불꽃놀이 등으로 구성된 복합멀티미디어쇼가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주경기장 입구부대 행사장에는 경북 농수산물 판매장과 청년기업 제품 판매장,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 홍보관, 관광 안내 버스 등을 운영했고, 스포츠 안전체험, 소방 안전체험, 키즈존 등 체험 행사를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30일 폐회식은 축하공연, 성적발표, 종합 시상, 차기 개최지인 울산광역시에 대회기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된 4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경북에서는 2021년 전국체전과 2022년 전국소년체전에 이어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림으로써 3년간의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기업애로 148건 중 111건 해소

경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기업애로해소 전담팀(TF)을 신설한 이후 애로사항 148건을 발굴하고, 111건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2개 기업 방문 등 '찾아가는 애로해소 현장기동반' 및 경남도 누리집 내 '경남기업119' 창구 등 기업 밀착지원으로 애로해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애로사항은 자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경남도는 정책자금을 안내하고, 금융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순천시

온라인 플랫폼 '청년정책114'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1일 온라인 청년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를 오픈했다.

순천시는 인터넷, 모바일에 익숙한 청년세대를 겨냥하여 맞춤형 온라인 청년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각 부서의 120여 개 청년정책을 한곳에 모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청년센터 대관과 각종 청년센터 프로그램(꿈청클래스, 잡튜터링, 꿈청상담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진주시

의료급여 특화 '건강누리사업'

진주시는 지난 4월부터 2023년 의료급여 특화사업인 '진주시 건강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70여 명을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보건소 한의사와 운동처방사를 연계해 개인별 맞춤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소 한의사가 참여해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발생 원인, 주 증상 및 합병증에 대해 교육하고 운동처방사가 근력 강화 및 부위별 스트레칭, 통증 완화 운동법 등 체험형 맞춤교육을 진행한다.

/진주(경남)=김영찬 기자

완도군

'국제 수산 식품 전시회' 참가

완도군은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완도군 관내 11개 업체와 함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 국제 수산 식품 전시회」에 참가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과 수산 식품을 홍보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주식회사 제이에스코리아, (유)완도세계로수산, 완도다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완도고금바다(주), ㈜해청정, 유한회사 해성인터내셔널, 우성물산, 대한물산, 완도전북주식회사, 완도망영어조합법인, 흥일식품 등 11개소가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 '글로벌대학30' 대비... TF·자문위 가동

지·산·학 협력, 동반성장 도모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돼 유리

전남도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대학30' 선정에 적극 대응한다.

선정에 대비해 '전남도-도내 대학' 간 협업 전담조직(TF)과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글로벌대학30'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추고 지역 혁신과 대학 발전 선도를 위한 혁신 의지가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

원한다.

교육부는 2023년에 10개 내외, 2024년 10개 내외, 2025~2026년 각 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라이즈 시범지역과 글로벌대학30사업 대응을 위해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라이즈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대학혁신 과제를 도출하는 등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을 계

획이다.

전남도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대학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기준 중 지역적 특성 '실행체계 구축' 항목에서 별도의 평가 없이 10점을 부여받게 돼 공모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라이즈 체계 핵심축인 전담센터 준비도 순항하고 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라이즈 추진단 시설을 위해 관련 조례와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전남도 공무원 등을 파견해 오는 7월 조직과 인력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의회 대표단, 함부르크 공식 방문 대전시, '강통 전세사기' 빨간불... 전국 최고

함부르크시의회, 개항축제 초청
부산엑스포 격려·홍보할 계획

부산시의회 대표단은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함부르크시의회를 공식 방문한다. 방문단은 의장을 포함 정채숙, 박종철, 이승연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함부르크개항축제 방문을 요청한 카를라 파이트 함부르크시의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양 의회는 2009년 우호협약 체결 후 활발히 교류해 왔으며, 지난해는 함부르크의회가 부산을 방문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5일부터 7일까지 하펜시티 인근에서 개최되는 함부르크개항축제는 부산이 주빈 도시로 선정되면서 축제 기간 한국-부산축제를 함께 개최된다.

방문단은 5일 안성민 의장의 개막식 축사를 시작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 정책홍보관,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등을 방문·격려하고, VIP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 내빈에게 부산엑스포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방문해 엘버트 J.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장과 백진현 전(前) 재판소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사 소송의 전문성 담보와 기업 법률 서비스 비용 절감 등 해사전문법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부산유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방문단은 차세대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기반 공유 택시 업체 '모이아'도 방문한다. 모이아는 인공지능(AI) 기반 전기차 승차공유 서비스로 이동 경로가 맞는 여러 사람이 승합차를 함께 이용해 이동할 수 있어 친환경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산업과의 합의 과정과 공생 방법 등에 대해 의논한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5월 불법증개행위 집중 점검 나서

대전이 전국에서 강통 전세사기 관련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강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증개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기간에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지역 중심으로 중개대상물 거래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증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전시가 특별 점검을 나선 데는 대전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시도별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전의 다가구주택은 총 3만466동, 대전 전체 주거용 건축물(9만894채)의 33.5%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 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비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이상인 것이다. 대전 중구 전세비율도 85.8%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 비율은 100.7%로 전국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건축왕 사례를 보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 등 강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원룸 위주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50억원대 전세사기 모두 다가구주택이 대상이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